

도요보의 신소재 - 속건성에 면촉감인 “스포츠코튼”

일본의 스포츠소재시장에서는 스펙(spec; specification)을 만들다 보니 점차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值)가 표준장비(裝備)로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오요오보(東洋紡)는 기능면에서 착용감(着用感)을 더 좋게 해줌으로써 스포츠소재시장으로의 스테이지업(stage up, 登壇)을 고려하고 있다.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도오쿄오지사(東京支社)에서 개최한 2008년 춘하전(春夏展) “ADVANCE”에서 착용감이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스포츠코튼(sports cotton)”이었다. 실의 심(芯)에는 폴리에스터 장섬유를 적절히 확산시켜 주고, 표면에는 면을 좀 두껍게 짜줌으로써 두 가지 섬유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실의 속으로 흡수된 수분(水分)은 폴리에스터 장섬유로 재빨리 확산되어, 섬유속(纖維束)을 따라 천 전체로 퍼진다. 면 100%의 촉감을 갖고 있으면서 속건성(速乾性)·항필성(杭pill性)을 함께 갖고 있는 소재이다. 오오사까(大阪)전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골프웨어로서의 문의가 많았다.

수요자들이 기능(機能)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의료(衣料)파이버사업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면의 촉감을 찾는 시니어(senior; 연장자)층을 감안하면서 스포츠소재의 핵심이라고 할만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다.

더욱이 스포츠만의 용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서 용도나 이너(inner) 등과 같이 시야를 넓혀 고객과의 대화를 널리 추진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